

“여야 협치로 민생·외교 등 문제해결 나서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

이 대표 부결로 갈라져서는 안돼 한일 미래로 가려면 배·보상부터 천하람 같은 청년들 도전 돕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이 내용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심기일전 해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박 전 원장은 지난 9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싸우면 망한다. 이렇게 싸우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다. 어떻게 됐든 이 대표 부결은 부결이다”며 “이제 와서 ‘수박’ 논쟁, 이낙연 나가라, 박지원 나가라, 이재명 나가라... 이런 청원 서명 운동을 해서 뭐가 되나”고 꼬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심기일전해서 단결해 나가야 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사과나 무한그루 심는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국민이 없는 오직 ‘윤석열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대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야당과의 협치’를 안 하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하루속히 만나 대통령이 못한 협치를 했으면 한다. ‘윤석열당’이 어떻게 될지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러한 협치라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잘하겠지만, 지금 정부 요직에 70명의 검사 있다. 이견 검사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 때는 형님(이상득) 탓에 ‘만사형통’했는데 지금은 ‘만사검통’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윤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팔아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예컨대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직접 치료 보상하는 것이 해결인가”라며 “양금덕 할머니의 ‘95살 평생에 가장 부끄럽다. 동남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우리 국민의 생각이다”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2023소울푸드 인사이트 포럼이 지난 9일 광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남정치 개혁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고 소신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먼저 오부치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드린다’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래로 가자’고 해서 마련된 선언이다. 강제징용 해법에는 피해자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호남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전국 광역 단위 국비 예산 배분율이 5.1% 증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광주는 3%, 전남은 3.1%, 전북은 2.5%, 경기도는 1.6%밖에 안 된

다”면서 “반면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강원도는 11%, 경북은 9.3% 등 모두 7%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래도 낙후된 지역인데 당장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배정도 이렇게 됐다. 민주당이 예산을 통과시킨 결과다. 소속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걸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며 “이런 것을 감안해 인물을 키우고 단체장과 의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들이 광장히 건전하더라.

그들에게 ‘왜 우리 지역은 이준석·천하람 같은 사람이 없냐’고 물으니 ‘선배들이 짓 누르니까’라고 답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마다 ‘젊은 피’를 수혈해 당을 젊게 하고 개혁의 길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386’ 세대들이 지금 ‘586’이 됐다. 그동안 젊은 피 수혈을 게을리한 것이다. 오히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젊은 피를 수혈해 이준석·천하람 등 인물이 등장했다. 내년 총선때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도전하게끔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김영록 지사 “교과서 마한 역사 수록 단 3줄”

“마한 역사 교과서 반영 확대해야”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장성 필암서원 춘향제 봉행에 참석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마한 역사

수록 내용 확대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백 필암서원 도유사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에 가야는 3쪽 분량으로 소개돼 가야사

에 대한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해상왕국 마한은 단 3줄만 기록됐다”며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객관적으로 고증·복원된 마한 역사를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중·고교 교과서에 영산강 유역 마한의 독창적 문화의 산물인 아파르트형 고분형식과 웅관묘, 금동관, 금동신발 등의 사진과 내용을 비롯해, 삼국을 비롯한 중·일,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을 확대 수록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배용 위원장은 마한 역사 소외에 공감을 표하면서 “고대 마한 역사 확대 반영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전남도에서 마한역사 고증과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마한 역사의 교과서 확대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마한사 교과용 인지도서 편찬을 위해 기초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항지 기자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헌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